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87호 【루계 제25596호】 주체106(2017)년 3월 28일 (화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천만군민의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리워 혁명전통교양의 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이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만년재보로 훌륭히 전변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소장 김정임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부소장 윤승화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조선혁명박물관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데 맞게 조선혁명박물관을 세계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개건공사를 직접 발기하시였으며 형성안과 전시방안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연건평이 6만 350여㎡에 달하는 조선혁명박물관의 개건 및 증축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수만여점의 사적물과 자료들을 전시한 100여개에 달하는 참관호실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과 우리 당의 혁명활동전반을 력사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줄수 있도록 정중하면서도 품위있게 꾸려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색조각상들을 정중히 잘 모시였다고, 특히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에 서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색조각상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정말 잘 형상하였다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을 직접 뵈옵고 가르치심을 받는것만 같다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매 년대기별로 꾸려진 호실들에 정중히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들과 전시된 사적자료들,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내용별로, 시기별로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게 학술체계구성을 잘 하였다고, 전시형식과 조명효과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혁명전사들사이의 동지적관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열렬한것인가를 력사적사실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자료들이 많다고,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빛나는 력사를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깊이 새겨주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이 훌륭히 개건된것은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전로정이 응축된 조선혁명박물관은 명실공히 우리 수령님의 혁명박물관, 우리 장군님의 혁명박물관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통계승과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였기에 조국이 해방된 다음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박물관창설을 친히 발기하시였고 박물관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혁명박물관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끄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이자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이라고,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면 조선혁명의 발전로정을 잘 알수 있고 우리가 걸어갈 행로가 눈앞에 선히 보인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기둥이며 등대인 조선혁명박물관은 국보중의 국보, 혁명의 교과서이라고 하시였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라고 하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며 박물관에 보존전시된 모든 사적물들과 자료들은 대대손손 길이 전해가야 할 가장 귀중한 재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면서 혁명의 대가 바뀌고 새 세대들이 조선혁명의 중견들로 자라고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날뛰는 원쑤들의 발악적인 책동이 악랄해지고있는 오늘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라고,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이 내용과 형식, 규모에 있어서 세계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으로,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개건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승리의 력사를 립증하는 혁명사적물과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혁명전통교양의 보물고를 풍부히 할데 대한 문제, 박물관사업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의 원칙,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 력사주의와 과학성의 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강사들이 정책적선에서 강의내용의 중심을 틀어쥐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강의를 통속적으로 생동하게, 진실하고 감명깊게 하며 이동강의도 적극 진행할데 대한 문제, 혁명사적물들을 원상그대로 영구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울데 대한 문제 등 박물관의 관리운영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인 항일혁명투사 황순희동지를 몸소 만나시고 건강도 념려해주시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초소에 서있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당의 혁명력사와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길에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전변된 박물관에 찾아오시여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승리의 력사가 어떻게 마련되고 빛나게 이어져오고있는가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줌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꽁고공화국 보건 및 인구상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꽁고공화국 보건 및 인구상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쟈끌린 리디아 미꿀로 보건 및 인구상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로작연구토론회
스위스, 에스빠냐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얼마전 스위스, 에스빠냐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에스빠냐 마드리드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마르런 뢰체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업적을 상세히 해설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은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을 가로막으려는 내외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이 날로 악랄해지고있는 현정세에서 더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김정은원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모든 성원들이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갈것을 호소한다.

에스빠냐 마드리드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미겔 비반꼬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로작을 학습하면서 인민대중을 제일로 여기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정치리념과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조선사회의 참모습을 더 잘 알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주체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

가장 존경하는 각하

저희들은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자력갱생-자주권의 열쇠》에 관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각하께 삼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자력갱생이야말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투쟁방식이라는데 대하여 한결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주체사상은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되였으며 오늘은 각하에 의하여 충직하게 계승되고있습니다.

자력갱생한다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살며 발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우리들자신도 잘 알고있습니다.

자력갱생은 자주적이고 굴하지 않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으로 됩니다.

자력갱생은 세계의 모든 짓밟히고 압박받는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열쇠이며 주체사상은 전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지침입니다.

자력갱생을 구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업과 농업,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난관속에서도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면 이 행성은 아름다운 락원으로 전변될것입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저희들은 현 세계정세에 비추어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도록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조선에 대한 제재는 유엔헌장의 란폭한 위반입니다.

저희들은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적극 기여할것입니다.

끝으로 저희들은 세계자주화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자력갱생-자주권의 열쇠》에 관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토론회 참가자일동
2017년 3월 17일 콜롬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경축 에티오피아준비위원회가 14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프리카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니가투 다그나체우 제리네트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 탄생 105돐경축 인디아준비위원회가 17일 뉴델리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비서 아툴 안쟌이, 부위원장들로 인디아소수민족전국위원회 위원 프라빈 다와르와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위원 하리싱 캉이, 서기장으로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쑤니트 초프라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과 사회주의건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 탄생 105돐경축 나이제리아전국준비위원회가 17일 아부자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인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루가, 부위원장으로 전 국회하원 의장 아군와 아나에크웨카, 서기장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하쌍 맴맨 무함마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소개선전하며 경축모임,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쏘련공산당산하 정당, 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련합위원회가 16일에 결성되였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련맹과 련맹공산당을 위하여》국제사회련합 위원장인 모즈고보이를 위원장으로 하는 련합위원회는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끼르기즈스딴공산당,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아제르바이잔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로씨야협회 등 정당, 단체대표들을 망라하고있다.

련합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영원히 빛날 지원의 사상, 오늘도 이어지는 조선국민회의 애국정신
여러 나라 단체와 지역기구 찬양

지원의 사상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지니시고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생을 바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공적은 반제민족해방투쟁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얼마전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조선국민회결성 100돐에 즈음하여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조선국민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어느덧 한세기가 흘렀다.

이날을 맞으며 조선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하신 선생께서는 일찌기 조선독립을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 무으신 조선국민회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과 독립운동의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형직선생의 지원의 숭고한 뜻과 조선국민회의 반제자주, 민족대단결리념을 혁명의 고귀한 사상정신적유산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 세계자주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민주꽁고단체뿐아니라 광범한 국제사회에서도 위대한 혁명가의 귀감이신 김형직선생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기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지원이란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인민이 주인된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숭고하고 심오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신분은 김형직선생이시다.

그이께서는 1917년 3월 23일 국내는 물론 해외의 광활한 지역에 하부조직을 가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김형직선생께서 무으신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조직이였다. 선생께서는 나라의 독립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것을 확신하시고 인민들을 계몽시켜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시였다. 그이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심으로써 조선에서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력사상 처음으로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단합된 힘으로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김일성주석탄생 105돐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김형직선생께서 조선국민회를 무으시였다.

조선을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자는것이 그이의 념원이였다.

조선국민회는 외세의 힘을 빌어 조선독립을 이루려고 하였던 다른 독립운동단체들과는 달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주독립을 위해 싸운 애국적인 조직이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을 안아오심으로써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아버님의 유훈을 실현하시였다.

조선국민회의 애국적인 정신은 존경하는 김정은위원장께서 제시하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방침들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지원의 숭고한 사상을 구현하시여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시였으며 20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벌려 조선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그리고 조선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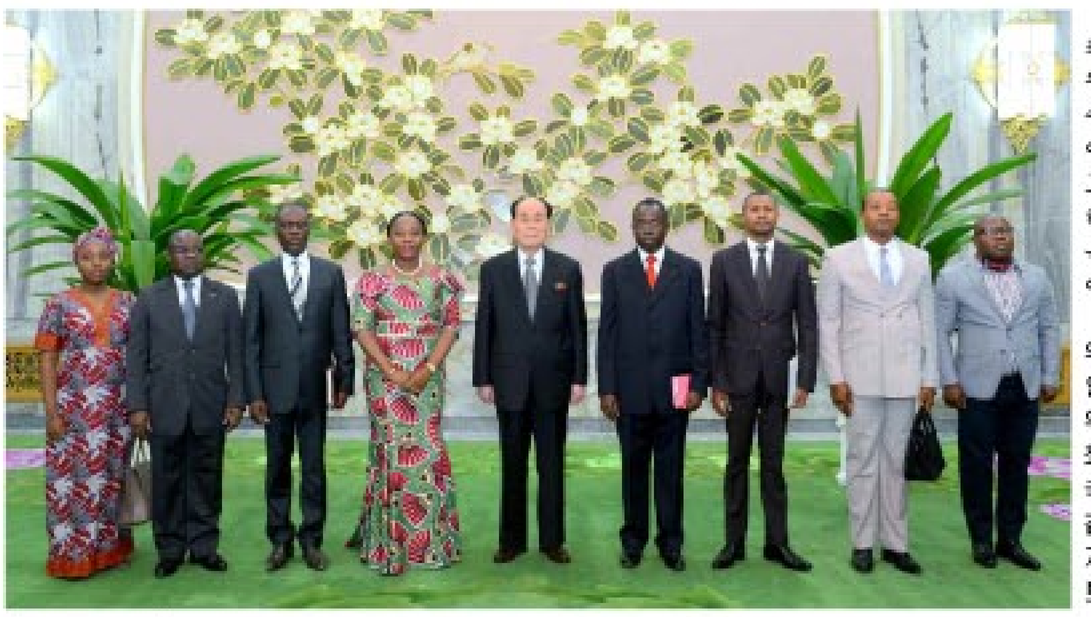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시여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오늘 조선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인민의 행복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하여 비약하고있다.

김형직선생의 지원의 사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쟈끌린 리디아 미꿀로 보건 및 인구상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단장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데니 싸쑤 느게쏘 꽁고공화국 대통령이 보내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방문기간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께서 조선인민의 행복과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해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더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의 이번 조선방문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강하국보건상, 신홍철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세포지구 발전소건설 힘있게 추진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에서

천하무도한 군사적망동에 어리석게 매달리는 원쑤들에게 자력자강의 단호한 철추를 내리며 강원도의 세포지구에 또 하나의 발전소가 거창하게 일떠서고있다.

이 수력발전소건설은 고미란천을 가로막는 수백만m³의 사석언제를 쌓고 비상배수와 수위조절, 취수를 위한 여러개의 물길굴을 뚫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이다.

세포지구에 달려나온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수력발전소건설의 기간부대, 근위부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며 2개의 물길굴을 성과적으로 관통한데 이어 굴확장과 콩크리트피복공사를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발전소건설을 앞당길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전력생산기지를 대대적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형입식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드세게 벌려 모든 건설자들이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처럼 시련과 난관앞에 순간의 멈춤도 모르고 발전소완공의 명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히 이곳 련합기업소를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을 수많이 일떠세워 나라의 전기화실현에 크게 공헌한 공로있는 건설부대로 내세워주시며 건설자들에게 수백세대의 은정어린 살림집들까지 친히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순간도 잊지 않고 보답의 한길에서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계속 창조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이곳 일군들은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적극 앞세우면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맡겨진 건설과제를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뜻깊은 태양절까지 3 000여m³의 콩크리트피복과제를 집적으로 해제낌으로써 가장 어려운 대상인 물길굴공사를 앞당겨 완공하고 첫 통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일정계획대로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처럼 당정책옹위의 길에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전투장마다에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례성강청년1호, 2호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을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창조물로 일떠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타입직장과 굴착직장의 건설자들이 이곳 발전소건설에 또다시 산악같이 떨쳐나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루적 20만m³이상의 토사 및 암반굴착과 4 000m³이상의 물길굴콩크리트치기과제를 성과적으로 해제끼였다.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많은 량의 우안언제바닥굴착과 콩크리트치기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언제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발전소건설의 주요공정을 담당한 시추직장과 혼합직장, 선별직장과 중기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1선, 2선가물막이와 언제바닥시추주입, 혼합물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만리마기수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는 수송직장과 가설직장, 공무동력직장의 로동계급이 물길굴들과 언제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에서 새 기록, 새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운수직장과 건설기계화사업소의 모든 운전사들도 륜전기재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매일 막대한 량의 물동을 책임적으로 실어나르며 하루하루를 빛나는 로력적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자강력은 곧 과학기술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력한 보검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한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이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지니고 발전소건설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이들은 종전의 2개 물길굴을 하나로 완성하며 암반의 세기에 따르는 합리적인 콩크리트치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많은 량의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완공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지름길을 마련하였다.

두뇌전, 기술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대차식으로 설치된 설비와 지구장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물길굴의 전면에 대한 굴착 및 콩크리트치기를 립체적으로 내밀수 있는 공법을 도입하고 언제바닥시추주입의 속도를 이전보다 1.3배이상으로 높일수 있도록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널리 받아들이고있다.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이 자재수송에 모를 박고 전반적인 공사기일을 앞당기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언제나 당의 부름에 결사관철로 화답해나서는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미더운 일군들과 전체 건설자들은 원쑤들의 망동을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으로 짓뭉개버릴 혁명적열의에 넘쳐 건설장마다에서 총돌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섭

총공격전의 불길 세차게 지펴올린다
황해북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에서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한 황해북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의 일군들이 건재생산기지들에 나가 불같은 헌신과 완강한 투지로 만리마시대의 맥동을 더해주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4분기계획을 관리국아래 서흥세멘트공장에서 150%, 평산화강석광산, 사리원위생자기공장 등 17개의 단위들에서 120%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황해북도학생소년궁전, 사리원학생가방공장, 황주중등학원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재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건설에 필요한 건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마음을 안고 관리국의 일군들은 새해 첫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관리국 당조직에서는 기동예술선동대를 사리원강철공장과 평산화강석광산을 비롯한 중요생산단위들에 내보내여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당, 행정책임일군들과 선동원들이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일데 대한 정치사업과 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관리국 참모부에서는 이미 꾸려놓은 생산기지들에서 건재생산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원료보장과 설비들의 생산능력을 높이는데서 찾고 모든 단위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그리고 일군들이 생산단위들을 하나씩 맡고나가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기술적지도,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도록 하였다. 또한 원료확보를 앞세우고 기술개조사업에 품을 넣으면서 설비점검보수체계를 엄격히 세워나가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도록 하였다.

생산단위들에 나간 관리국일군들은 전투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세멘트공장들에 나간 관리국일군들은 책상머리가 아니라 격렬한 전방에 위치를 정하고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로 대중을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야전형의 지휘관이 되여 유연탄, 무연탄보장을 앞세우며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투를 통이 크게 내밀었다.

서흥세멘트공장에 나간 관리국일군은 공장일군들과 합심하여 운반수단들을 총집중시키고 자체의 힘으로 원료확보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였다.

이에 고무된 공장로동자들은 너도나도 떨쳐나 원료확보와 운반전투를 통이 크게 벌려 생산준비를 와닥닥 끝냈다. 그리고 설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설비마다 만가동을 보장하였으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투를 근기있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3월말현재 계획보다 1.5배이상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였다.

사리원위생자기공장에 나간 관리국일군들은 공장일군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공장일군들은 앞선단위들에 대한 참관사업과 기술협의회를 현장에서 자주 조직하여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결과 공장에서는 자기 고장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새로운 형의 위생자기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함으로써 1.4분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아래 다른 생산단위들에서도 자력자강의 기세드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매진, 총돌격하며 새 기록, 새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갔다.

한편 관리국일군들은 자력자강의 각오만 투철하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울수 있으며 그 무엇도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정신세계와 견인불발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철강재생산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결과 사리원강철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종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감속기축베달을 비롯한 여러종의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지금 관리국아래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더 힘있게 벌어져 건재생산전투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수령의 유훈관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석탄생산에서 계속혁신의 불길을!

창립 40돐을 맞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굴지의 대규모탄전이 전하는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사상과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주제106(2017)년 3월 28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무어주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창립 40돐의 년륜이 새겨지는 이날을 맞으며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 광로자들과 탄부가족들은 우리 나라 탄광부문의 첫 련합기업소를 무어주시고 북창의 대동력기지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석탄을 팡팡 생산보장하는 대규모석탄생산기지로 전변시켜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더듬어보고있다.

1970년대 중엽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금속도로 발전하는 나라의 현실은 석탄공업부문의 탄광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할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7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시고 덕천지구 탄광들의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신 이후 직접 덕천지구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석탄생산을 응당한 높이에 끌어올리지 못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있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탄광들의 생산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때로는 석탄먼지가 흩날리는 탄광길도 길으시면서 석탄생산에서 걸린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도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곳 일군들은 당시의 형편에서 생산을 늘이자면 몇개 탄광을 더 개발하고 방대한 설비와 자재, 운수수단을 들이밀어야 하는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기술적인 대책을 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덕천지구 탄광들의 행정지휘체계와 당조직체계를 개선하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무엇보다먼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조직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탄광부문의 첫 련합기업소의 조직!

오래동안 탄광부문에서 일해온 일군들도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 근본문제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뵙과 머칠간의 현지지도의 로정속에서 포착하시고 즉석에서 명철한 해결방도를 세워주시였다.

40년전의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접심식사까지 뒤로 미루시며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무어주시고 석탄공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해주시면서 갓 조직된 탄광련합기업소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업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탐사와 굴진을 석탄생산에 앞세울데 대한 문제, 삼, 곡괭이, 정대를 비롯한 소공구와 착암기, 압축기와 같은 설비를 원만히 보장해주는 문제, 갱도들의 영구화를 실현하는 문제, 로동정량을 바로 제정하는 문제, 탄부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련합기업소를 무어주시던 나날에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태어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는 조직된 첫해부터 자기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주제66(1977)년에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량은 그 전해에 비해 1.5배로 장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개천지구와 안주지구에 탄광련합기업소를 조직해주신데 이어 순천, 구장, 고원을 비롯한 탄광들이 집중되어있는 곳에 탄광련합기업소를 내오는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심으로써 석탄공업부문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새로 조직된 탄광부문의 련합기업소들이 크게 은을 내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청산리가 농업부문에서 전국의 앞장에서서 나가는것처럼 덕천지구 탄광들이 석탄공업부문에서 전국의 앞장에서서 혁신의 봉화를 들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덕천의 탄부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년대기마다 석탄증산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주체82(1993)년 2월에는 덕천탄광 사동갱의 청법한 탄부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믿음의 친필시한을 보내주시였다.

주체104(2015)년 2월 덕천탕에는 만사람의 격정과 감동을 자아내는 또 하나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전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뗏뗏치 못한 과거와 절별한 청년들이 덕천탄광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탄광들에서 청년돌격대를 뽑고 석탄생산전투를 벌리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당은 천군만마를 얻은듯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그들모두에게 자신의 인사를 보내주시였다.

돌이켜보면 창립되여 현재까지 40년간 련합기업소가 걸어온 자랑찬 투쟁행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초선에서 당과 수령의 위업을 석탄증산으로 받들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전위대오로 강화발전된 영광넘친 나날들이였다.

이 나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금진을 앞세워 수억t의 석탄매장량을 확보하고 수십개의 사경과 수백개의 새 채탄구역을 개발하였으며 해마다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임으로써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생산자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 하루평균 천수백t씩 증산하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활화산처럼 지펴올려 누구나 아름차다고만 생각했던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련합기업소전투장마다에서는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이 련이어 태여났다.

덕천탄광기계공장에서는 70일전투가 시작되여 짧은 기간에 100대의 탄차를 제작한데 이어 지난 한해동안에 천수백대의 탄차를 제작하였고 유압식프레스, 200hp권양기, 광면흡입식원심통풍기, 버럭적재기를 비롯한 탄광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여 석탄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선군시대공로자를 배출한 덕천탄광무제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코마르까세멘트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갱도의 영구화를 실현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의 빛나는 장을 열어놓았다.

하나의 아담한 공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훌륭히 꾸려진 현대적인 탄부오리공장에서는 축산을 과학화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탄부들에게 고기와 알을 떨구지 않고 넉넉히 공급함으로써 후방공급사업에서도 석탄공업부문의 모범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련합기업소탄광들에서는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 200일전투에서 이룩한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어나가기 위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탐사와 굴진을 석탄생산에 앞세워 수백만t의 확보탄량을 마련하고 석탄생산의 전망을 열기 위한 과감한 공격전이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드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창립 40돐을 맞이하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대고조전군의 진격에서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총정의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강 명 천

석탄증산으로 당을 받들어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 서창청년탄광 로동계급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사업에서

섬멸전의 방법으로 앞아온 뚜렷한 성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절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뜻깊은 올해에 탄광들의 20여개소에서 수백만t의 확보탄량을 마련하고 사경굴진에 박차를 가하여 생산의 전망을 확고히 열어놓음으로써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자는것이 올해 련합기업소가 내세운 전투목표이다.

창립 40년간의 력사를 돌이켜볼 때 이들이 올해에 내세운 전투목표는 그 어느 생산년도에 비할바없이 높고 아름찬 과제가 아닐수 없다.

지난 1월말, 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은 덕성탄광과 덕천탄광의 중요개소들에서 굴진경기를 조직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덕성탄광의 중요개소에서는 탄광들의 고속도굴진소대들간의 굴진경기를, 덕천탄광에서는 청년돌격대들간의 굴진경기를 조직하여 최단기간에 이 탄광들의 생산전망을 열자는것이였다. 굴진개소가 하나인 막장에 한주일씩 차례로 전투력있는 청년돌격대와 고속도굴진소대들을 투입하여 섬멸전을 들이댄다면 최단기간안에 이 탄광들의 생산전망을 열어놓을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 련합기업소에서 내세운 20여개 대상굴진을 얼마든지 해제낄수 있다는것이였다.

책임일군의 제안에 깊은 일군들이 승산이 내다보이는 제안이라고 찬성을 표시하였으나 일부 의문을 표시하는 탄광일군들도 있었다.

탄광들에서 한다하는 청년돌격대와 고속도굴진력량을 련합기업소가 내세운 대상들에 돌리면 그만큼 자기네 탄광이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련합기업소가 내세운 기간에 해당 대상들의 굴진을 마무리할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던것이다.

그때로부터 며칠 지나서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련합기업소적인 각 탄광청년돌격대원들의 체육경기를 조직한다는 소식이 탄광들에 전해졌다.

경기요강이 전해진 후 경기들에서 우승하려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승벽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온 련합기업소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체육경기는 일군들과 탄부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혁명의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면서 대렬행진부터 진행된 청년들의 체육경기는 온 덕천시내를 들끓게하였다.

경기후 탄광일군들은 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이 왜 이 경기를 조직하였는가를 깨닫게 되였다.

희망과 포부가 크고 진취성, 혁명열이 강한 청년들의 기개이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겨놓고 청년돌격대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지펴진다면 그 불길이 탄광들에로 이어질것이라는것을 일군들은 다시금 새기고 덕성탄광, 덕천탄광들로 청년돌격대원들과 고속도굴진소대원들을 떠밀어보내였다.

탄광들의 전망을 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은 각 청년돌격대별, 고속도굴진소대별사회주의경쟁인 동시에 두개 굴진개소가운데서 청년돌격대가 앞서느냐, 고속도굴진소대가 앞서느냐를 판가름하는 경쟁무대로 화하였다.

경쟁이 시작된 3월 초순부터 굴진막장들에서는 놀라운 속도가 창조되였다.

불리한 조건으로 하루에 2m이상은 돌파하기 어렵다던 막장에서 4.5m, 7m 지어 그이상의 놀라운 굴진실적이 기록되였다.

각이한 암질조건에 맞는 새롭고 새로운 착암방법과 발파방법들이 도입되고 초급일군들의 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이 개선되였으며 돌격대원들과 굴진공들속에서는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기풍이 높이 발휘되였다.

그리하여 련합기업소창립 40돐을 앞두고 두 대상에서의 굴진전투가 성과적으로 끝남으로써 두 탄광의 갱들에서는 석탄증산의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투를 계기로 일군들의 혁신적인 안목이 기적을 안아왔다고 이야기하고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일군들과 탄부들이 다시금 새겨야 할 문제가 있다.

40년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주요탄광지구들을 하나하나 추켜세워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종자로 틀어쥐고 련합기업소일군들이 사회주의경쟁의 방법론을 혁신하였다는것이다.

본사기자

련합기업소가 자랑하는 보배공장들

탄광기계공장과 탄광부재공장을 가리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없어서는 안될 공장, 보배공장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그것은 이 공장들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련합기업소의 석탄증산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적극 고무추동하고있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탄광기계공장은 자체의 힘으로 막장소공구와 탄광설비부속품은 물론 탄차와 10t급전차, 200hp권양기와 광면흡입식원심통풍기까지 제작하고있다.

이 공장이라고 하여 다른 단위보다 특별히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거둔 성과가 아니다.

오늘의 하루하루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립압살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철추를 내리고 부강번영할 조국의 역년기들을 마련해가는 성스러운 투쟁의 분분초초라는 비상한 사상적각오와 전인불발의 의지로 탄광기계설비와 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온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억척의 신념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인것이다.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만도 전차대치차를 비롯한 10종에 2 100여점의 설비부속품과 천수백대의 탄차를 생산하는 위훈을 창조하였고 150t유압프레스를 자체로 제작하여 탄차생산량을 2배로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전망도 열어놓았다.

자력갱생, 자금자족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고있는 탄광부재공장은 년간 1만 수천m의 세멘트와 수십만장의 일반불로크, 갱도영구화불로크를 생산하고있다.

그 어디서나 자력자강의 슬결을 공기처럼 호흡할수 있는 공장에서는 모든 생산공정에 콤퓨터에 의한 자동조종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으며 원료공급의 벨트콘베아수송을 실현함으로써 로력과 원료보장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고있다.

새로운 내화벽돌을 자체로 생산하여 소성로의 가동시간을 늘이였으며 한번도 만들어보거나 설계해본적도 없는 요술기를 단번에 두대씩이나 자체로 제작하여 자력자강으로 흥하는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창조정신, 창조본때를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알찬 열매들을 가꾸어가는 탄광기계공장과 탄광부재공장의 자랑찬 현실을 놓고도 자력자강으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활력에 넘친 모습과 이 땅에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는 자강력의 무궁무진한 힘을 똑똑히 느낄수 있다.

본사기자

당정책을 보검으로 틀어쥐면 승리한다

수억t의 석탄매장량 확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지 못하면 헛굴진을 하게 된다고 하시며 이곳 련합기업소에 강력한 탐사력량을 보내주시였다.

당의 믿음과 사랑을 새겨안은 련합기업소아래 탐사대원들은 지난 기간 누가 보건말건 목묵히 험한 길을 걸으며 전망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그들은 해발고가 높은 곳에 시추기를 끌어올리고 측량기를 메고 하루에도 100여리씩 산관을 달리며 지하의 책임병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수십년간 해마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석탄공업성적인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 지난 40년동안 캐낸 석탄량의 3배에 맞먹는 전도유망한 석탄매장지를 탐사확증할수 있었다.

지금 련합기업소 탄광들에서는 이들이 마련한 과학적인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새 탄밭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여 증산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갱도영구화 종전의 5배로 장성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덕천지구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늘이자면 갱도영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갱도영구화를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수령의 유훈관철전에 총동원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탄광부재공장에 세멘트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고 생산능력을 종전에 비할바없이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탄광들의 갱도들을 영구화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는 담보를 열어놓았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련합기업소탐보부에서는 갱도영구화사업을 순간도 중단할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탄광들에서 갱도영구화목표를 일별,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운반작업의 다양화성과 확대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은 운반작업의 다양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박차를 가하였다.

최근년간에만도 제남, 남양탄광에서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석탄운반의 다양화가 실현된 결과 생산이 1.5배, 최고 2배로 장성하였다.

멀지 않아 남양탄광의 2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와 형봉탄광 대성갱입구에서 저탄장까지, 철봉탄광 월봉갱입구에서 저탄장까지 련결하는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직인 여러 대상공사가 끝나면 전력, 금속, 화학공업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게 된다.

이 성과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운반작업의 다양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점사관철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본사기자 전 성 삼

후방사업에서도 본보기가 될 목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방사업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사업입니다.》

탄부들의 후방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면 자연히 탄부오리공장에 대한 화제가 제일 먼저 오른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멀리서 보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오고 밤에 보면 밝고 화려한 불장식과 더불어 이채로운 광경을 펼치는 희한한 탄부오리공장은 안팎으로 멋있는 공장이다. 오리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 탄부들에게 매달 정상공급하고있으며 칠면조와 타조까지 기르고 양어장에서는 많은 메기도 생산하여 탄부들의 식탁을 푸짐히 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로동자합숙과 탄부원은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터치게 한다.

10여개의 호실들과 대중식사실, 주방칸, 목욕탕 등 모든 생활조건들을 훌륭히 갖추어놓은 로동자합숙에서는 종업원들이 즐겁고 랑만적인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수영관과 운동실까지 꾸려놓은 탄부원은 공장의 종업원들은 물론 련합기업소의 탄부들도 즐겨찾는 소문난 문화후생시설이다.

이처럼 탄부오리공장의 생산문화, 생활문화수준은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훌륭하다.

그러나 보다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것은 탄부들을 위한 일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 련합기업소일군들의 높은 요구성과 남다른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적인 일본새이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제기되는 정상공급하고있으며 칠면조와 타조까지 기르고 양어장에서는 많은 메기도 생산하여 탄부들의 식탁을 푸짐히 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로동자합숙과 탄부원은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터치게 한다.

10여개의 호실들과 대중식사실, 주방칸, 목욕탕 등 모든 생활조건들을 훌륭히 갖추어놓은 로동자합숙에서는 종업원들은 로력과 원료보장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고있다.

새로운 내화벽돌을 자체로 생산하여 소성로의 가동시간을 늘이였으며 한번도 만들어보거나 설계해본적도 없는 요술기를 단번에 두대씩이나 자체로 제작하여 자력자강으로 흥하는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창조정신, 창조본때를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알찬 열매들을 가꾸어가는 탄광기계공장과 탄광부재공장의 자랑찬 현실을 놓고도 자력자강으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활력에 넘친 모습과 이 땅에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는 자강력의 무궁무진한 힘을 똑똑히 느낄수 있다.

본사기자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워간다.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있는 형봉탄광 탄부들

제남탄광의 로력혁신자들

탄부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덕천탄부오리공장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당의 후대사랑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만리마시대의 참된 보건일군집단

옥류아동병원 심장혈관외과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로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을 다녀가신 때로부터 3년이 되였다.

한 병원의 력사로는 매우 짧은 이 나날에 옥류아동병원은 오랜 역력을 가진 중앙전문병원들 못지 않게 우리 인민들의 마음과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일군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것만큼 누구보다도 당에 충실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책임성과 기술실무적자질이 높아야 합니다.》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옥류아동병원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면서 이룻 의료일군들에게 선전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병원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간곡한 당부를 당이 안겨준 지상의 혁명과업으로 받아안은 옥류아동병원 의료일군들은 한명한명의 어린 환자들을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굳게 믿고 인민들이 맡긴 조국의 기둥감들로, 로동당의 귀중한 자식들로 여기며 온갖 정성을 다 바쳐가고있다.

인민들의 진정넘친 존경을 받고있는 옥류아동병원 의료일군들속에는 외과부문에서 제일 어려우면서도 첨단기술분야의 하나인 소아심장외과치료를 조국앞에 믿음직하게 책임지고있는 심장혈관외과집단도 있다. 그들이 아이들에게 안겨준 새 심장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는 천리마시대 인간사랑의 노래를 만리마시대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교향곡으로 끊임없이 이어가는 참된 보건일군들의 고결한 정신적 풍모를 만사람들에게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북변땅의 소녀가 부른 노래

이 이야기는 지난해 뜻밖의 큰물피해로 대재난을 입었던 조국의 북변땅 청홍군, 심심산골인 흑야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도인민병원에서 현장치료대가 왔어요.》

인민반장의 청높은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반 농업과학기술선전실은 사람들로 실떠였다. 탕의 호소를 받들고 북변땅으로 달려온 의료일군들은 려장도 풀새없이 마을사람들을 정성껏 검진해나갔다. 아버지의 등에 업혀온 15살 난 소녀 장은희도 의사앞에 나섰다.

《이런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까지?…》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의사에게 옥아축산전문협동농장 농장원인 은희의 아버지 장순철은 한숨을 내쉬며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현대의학으로는 우리 애의 심장병을 고치지 못한답디다.》

의사는 단호히 머리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고칩니다. 유명한 옥류아동병원에 가면 심장수술 잘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치료대 의사들은 마치도 자신들이 옥류아동병원의 보건일군인듯이 저마다 밝고 신심에 넘친 목소리로 평양길을 재촉했다.

이렇게 되여 산골마을소녀 은희는 나서 처음으로 기차도 라고 바다도 보며 아버지와 함께 평양의 옥류아동병원으로 들어서게 되였다.

뜻밖에 부부괴해지역에서 찾아온 산골소녀를 접수한 심장혈관외과 의사 김철명동무는 참으로 난감해졌다. 새파래지다못해 새까메진 얼굴, 보라빛입술, 부채처럼 불어나있는 손가락과 발가락들, 당장 멎을것만 같은 할딱할딱하는 숨소리…

선천성심장병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팔로4증후환자들가운데서도 은희는 지금까지 맞다든적이 없는 가장 위중한 환자였다.

세계적으로 볼 때 어머니배속에서부터 기형인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 선천성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은 1,000명당 8명 정도인데 그 치료비가 너무도 막대하여 어떤 나라들에서는 선천성심장질병으로 인정만 되면 출생하자마자 그 생명을 아예 단념해버린다고 한다.

김진명동무의 진찰소견을 들으며 심장초음파의사 한명숙동무와 함께 소녀의 심장을 몇번이나 살펴본 원장 조인수동무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수술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옥류아동병원에 오면 다 고친다던데…》

하던 소녀의 아버지, 산골농장원의 목소리가 귀전에 메아리칠수록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의 구절이 그의 심장을 팡팡 흔들었다.

마음속 첫자리에 인민을, 그 인민의 맨앞에 아이들을 놓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어버이사랑에 받들려 일떠선 옥류아동병원, 그 이름을 인민은 기적과 소생의 대명사로,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상징처럼 대하고 있지 않는가.

심장혈관외과집단은 보통날, 보통때에는 결심할수 없는 용단을 내리고 북변땅의 소녀에게 새 심장을 주기 위한 힘겨운 전투에 진입하였다.

심심산골에서 1년 365일 조롱속의 새처럼 방안에 갇혀 하염없이 창문만 내다보던 은희앞에 벌세상이 펼쳐졌다. 보면 보는것마다 신비롭고 들으면 듣는것마다 희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동화그림들이 딱 들어찬 아동궁전같은 병원, 임원실마다에는 따뜻한 사랑어린 텔레비죤과 랭동기가 있었는데 은희가 입원한 심장혈관외과의 모든 방들은 그이께서 몸소 도배종이의 무늬까지 살펴주셨다고 한다. 방영애간호장의 이야기를 품속에서처럼 들으며 호실에 처음 들어선 날 은희는 제 집보다 더 마음을 푹 놓고 눈잠을 잤다.

교기, 수산물, 닭알, 우유, 당과류, 과일, 영양즙…

매일, 때끼 시간맞춰 어머니당의 따뜻한 사랑이 어린 영양가높은 식사와 약들을 받아안으며 은희와 아버지는 큰물피해입은 자기 고장, 자기 마을에도 매일같이 차에 실려오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온정깃든 옥택미며 물고기생각이 나서 눈시울적시였다.

어느날 그의 호실로 은희보다 먼저 심장수술을 받은 희명땅의 9살 소년과 함께 그의 할머니가 찾아왔다.

《우리 손자도 너와 같은 병이였단다. 여기 선생님들은 못 고칠 병이 없어. 그 보배 손들을 믿어라.》

한호실에 입원한 환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원장선생님은 우리 나라 소아심장외과의 개척자란다.》

《이 심장혈관외과는 세계적수준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단다.》

언제부터인가 은희는 자기처럼 얼굴이 새파란 심장병환자들을 남모르게 살펴보게 되였다. 그 새파란 얼굴이 고운 얼굴 되고 뽀얀 한번 차보지 못했던 두발로 활개치며 옥류아동병원문을 나서는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은희는 어이하여 입원한 첫날부터 과의 의사, 간호원들이 오래동안 함께 살아온 한 식솔처럼 정답게 느껴졌던지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바로 그것은 자기를 놓 근심안고 바라보던 어머니에게서는 찾아볼수 없었던 믿음으로 카득찬 의사선생님들의 맑은 눈빛때문이였다. 우리 원수님 사랑이 뽁 차넘치는 훌륭한 병원과 미더운 의사선생님들은 은희에게 지금껏 한번도 품은적 없었던 희망을 안겨주었다.

(나도 새 심장을 가질수 있구나!)

바로 그 시각 심장혈관외과에서는 은희의 수술을 앞두고 병원적인 협의회가 또다시 진행되고있었다.

각종 검사만도 법씨 몇십차례, 0.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 남은것은 그 시도만으로도 심장이 멎어버릴수 있는 심장혈관조영검사뿐이였다. 혹 칼을 댄다고해도 수술시에 또 어떤 위급한 정황이 발생할지 누구도 예상할수 없었다. 그런 경우 수술은 물론이고 련속수술과도 같은 집중치료는 말그대로 검사전을 요구하였다.

과장 리철진동무에게는 방금전에 만났던 은희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나 또 수술할수 있나요?… 없나요?》하고 조심히 물어보던 애처로운 그 눈빛은 《제발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하는 무언의 간청으로 그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담당의사인 부과장 김철진동무도 《우리 집에선 그애 없인 못삽니다.》라고 눈물이 그렁해서 말하던 은희아버지의 목소리를 피로한 마음으로 되새겨보고있었다. 그러나 통정과 욕망만으로는 실천될수 없는 일이였다.

협의회의 무거운 공기를 깨뜨리며 원장 조인수동무의 낮으나 침착한 목소리가 모두의 귀전에 울려왔다.

《천리마시대의 방하수소년이 가능성이 많아 두번다시 태여났소?

만약 환자에게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99%의 가능성은 환자를 당일에 책임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오. 집도는 내가 하겠소.》

주저하고 동요하던 눈빛들에서 불꽃이 벙끗벙끗 일어번졌다.

새 기계를 만들어낼 때와 생명에서 핵심인 심장을 수술할 때의 리치는 같지 않다. 기계는 한번 실패하면 두번, 스무번을 다시 뜯어고쳐 완성할수 있어도 심장수술은 그 한번에 삶과 죽음으로 결판이 나고만다. 피와 살을 바치는 정성만으로는 풀수 없는 새 심장이 요구하는것은 바로 생명의 기적을 낳는 첨단기술, 99%의 불가능에도 자신있게 도전해나설수 있는 의료일군의 높은 실력인것이다.

환자이기 전에 나의 자식으로 은희를 품어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번시킬 수술방법을 모색하며 고심어린 지혜를 합치던 심장혈관외과집단의 불같은 탐구의 낮과 밤들을 우리는 여기에 다 적지 못한다. 조인수원장은 그때를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수술장으로 들어설 때 저의 마음은 돌격전에 나가는 병사의 심정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적을 죽이지 못하면 그 적의 탄알에 나의 환자가 죽는다. 그 적탄을 한몸이 아니라 바로 수술칼로 막아야 하는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수술을 마친 은희가 집중치료실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눈가에 제일먼저 비껴든것은 아버지가 아니였다. 친자식이 다시 태어난듯 행복의 희열에 넘쳐있던 병원일군들과 심장혈관외과 의료일군들의 사랑과 진정에 넘친 그 눈빛을 그가 어찌 정생토록 잊을수 있으랴.

늘 생사를 다투는 중환자의 집중치료를 말아 언제 한번 잃을새없이, 발편잠 자볼새없이 자기 심장을 초불처럼 태워 소생의 박동을 더해주며 소아심장외과 집중치료부분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 김철진동무, 그의 손에 이끌리여 울며 웃으며 들어선 아버지에게 은희는 물었다.

《오늘이 며칠이나요?》

《12월 8일, 네 생일날이다.》

은희는 옥류아동병원에서 처음으로 생일날의 기쁨을 느꼈다. 리금옥간호원이 은희의 얼굴앞에 살며시 거울을 비쳐주었다.

빨개진 입술, 하얘진 얼굴… 내가 이렇게도 고왔댔나 하고 놀랄 정도로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

천태 은희는 사전짝는것이 제일 질색이였다. 새까만 얼굴모습에 그래도 입술만은 빨갛게 만들어보려고 제손으로 색종이를 오려붙여놓은 딸애의 사진을 보며 온밤 눈물로 베개잇을 적시던 어머니가 생각났다. 한시바삐 고향으로 달려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는가고 때없이 어머니를 졸랐던 지난날들을 용서받고싶었다.

딸의 작은 가슴에 귀를 대고 콩콩 심장이 높뛰는 소리를 몇번이나 다시 들어보던 은희아버지는 끝내 오열을 터치고야말았다.

《새 집을 받아안은 저에게 선생님들은 새 심장을 가진 딸까지 안겨주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전화위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를 안아일으키는 김철진동무의 가슴도 세차게 높뛰였다.

《은희의 새 심장은 우리의 의술이 아니라 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옥류아동병원이 준것입니다.》

산소공급관을 늘여주는 분제로부터 수술장벽에 낸 작은 흠까지 마음쓰시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심장수술장과 집중치료실을 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의 자욱자욱이 다시금 가슴뜨겁게 어려와 그의 눈금은 더욱 젖어들었다.

의학발전수준이 세계적으로 손꼽힌다는 자본주의나라의 한 의료일군은 옥류아동병원의 심장혈관외과를 돌아보고 이처럼 최고급의 의료설비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준다니 피해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 커다란 혜택을 귀국의 인민들이 다 아는가고 물었다고 한다. 아마도 엄청난 치료비가 요구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라면 병원문전에도 가볼수 없는 산골농장원의 딸의 운명은 어머니 배속에서 하고난 그 짤막한 생명의 시간으로 고통속에 흐르다 끝나고말았을것이다.

마침내 은희는 그렇게도 밟아보고싶던 병원의 1층부터 6층까지의 계단을 단숨에 오르내리게 되였다. 학교와 직승기착륙장까지 있는 희한한 병원. 하루라도 더 있고싶은 자기의 새 생명의 고향집인 옥류아동병원에 은희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합쳐 큰절을 드리고싶었다.

은희는 새해 2017년을 정양의 옥류아동병원에서 맞이하였다. 내가 살날이 줄어드는구나, 올해는 살아낼가 가슴조이며 한해를 맞이하군 하던 소녀였다. 신년사를 하시는 우리 원수님, 뵙고싶은 그이를 아버지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텔레비죤으로 뵈는 소녀는 격정에 북받쳐 문을 열고 로대로 달려나갔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속에 바로 나의 행복도 담겨지있구나 하는 가슴벅찬 환희에 심장이 악동하는 소리가 쿵쿵 더 세차게 들려왔다. 부르고 불러도 또 부르고싶은 노래가 지도 모르게 울려나왔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인민이 아는 의사들

다른 의학분야와 달리 심장외과분야는 그와 이어진 모든 학문을 독파할것을 요구한다. 의사 리형우동무는 집단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어 한건의 수술을 10건 수술의 밀천으로 삼을수 있게 매일같이 진지한 기술학습을 벌리며 세계를 향해 첨단의 선두에서 달렸고 그 나날에 의사 김철호동무를 비롯한 집단의 누구나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이 되였다.

나라가 히리띠를 조이던 어려운 때에서 휘청거리는 몸을 카다듬으며 몇시간씩 꼬박기 서서 수술을 하고나면 눈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의사인 아버지의 손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랑하는 혈육들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나약해지는 그때마다 그들의 백절불굴의 의지를 용암처럼 끓여준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7월의 피눈물이였다.

당의 보살핌속에서 과학적시야를 넓히고 실력을 높인 그들은 마침내 과가 조직된지 두해만에 두살짜리 어린이심장수술에 성공하였다. 당시 평양의학대학병원을 찾았던 어느 한 나라의 권위있는 심장외과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두살짜리가 두살짜리를 수술했구만. 책을 보면서 자체로 했다는것이 더욱 놀랍소.

하지만 지금 당신들이 해내겠다고 하는 팔로4증후와 같은 심장수술은 아마 10년이 걸려도 못할거요. 탁아소생의 대학생품이지.》

심장혈관외과를 대표하여 조인수동무는 이렇게 단호히 선언했다.

《조선사람들은 빈말을 모른다는것을 당신은 곧 알게 될거요!》

소아심장외과의 개척과 정복이라는 과제를 다음세대에 빚으로 넘겨줄수 없다는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들은 조선의학자의 민족적자존심을 안고 꾸준한 탐구와 실천으로 2002년에는 어린이선천성심장병에 대한 우리 식의 수술법, 수술후 치료법을 더욱 하게 되였다. 그해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소아심장외과분야를 개척한 이들에게 은정어린 감사와 함께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까지 안겨주시였다.

다음해 1월 그들은 10년이 걸려도 못할것이라면 첫 팔로4증후수술에서 성공하였으며 그해에만도 그 질병에 대한 수십건의 수술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보통강구역에 사는 김윤미 소녀를 수술할 때의 일이다. 긴장하게 수술준비를 완성해나가던 어느날 당시 부과장이였던 조인수동무는 윤미의 나이가 17살이라는데 주춤하게 되였다. 이미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무모들이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딸애가 앞으로 시집도 가야 할텐데 수술자리를 조금만이라도 없애줄수는 없겠습니까.》

그는 단호히 결심하였다.

(우측흉벽절개도달법으로 윤미를 수술하자.)

아직은 세계적으로도 몇가지 간단한 심장수술에 국한되어있던 이 도달법은 팔로4증후와 같은 복합심장기형수술에서는 사실 집도자에게 매우 위험하고 불리하며 기술적으로 높은 실력을 요구하는 도달법이였다.

그러나 당시 심장수술의 표준적인 수술도달방법으로 되어있던 흉골정중절개도달법에 비해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며 특히는 미용학적측면에서 수술상처로 인한 환자들의 정신적부담을 감소시킬수 있는 우월한 방법으로서 심장수술분야에서의 새로운 학문개척이라 다름없었다.

이렇게 되여 윤미는 오늘날 세계보건계에서도 우수하고 난도높은 기술로 공인되여있는 《우측흉벽절개도달법에 의한 심장수술방법》으로 팔로4증후를 치료받은 첫 환자가 되였으며 그때부터 그 수술도달법은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리해할수 없는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진행하는 심장수술의 표준적인 수술도달방법이 되였다.

외과의사는 수술자리만 보고도 자기가 수술한 환자를 알아맞힌다고 한다. 부모도 줄수 없었던 새 심장을 안겨주면서도 그 수술자리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어려운 길을 택한 의료일군들, 우리 당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보건일군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란 바로 이런것이 아니겠는가.

7년전 11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병원 심장혈관외과에서 출생한지 다섯달도 안되는 어린이에 대한 심장수술을 진행하여 완치률을 95%이상 높이고있으면 세계적수준이라고 할수 있다는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2013년 6월 29일 《로동신문》에는 태여난지 다섯달도 안되는 아들의 끼니가면 심장을 기적적으로 소생시켜준 심장혈관외과 의료일군들의 소행에 대하여 한 군인가족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린 편지전문이 게재되였다. 소박한 그 편지를 격정속에 읽어보던 이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로부터 넉달도 안되여 옥류아동병원을 당의 선물로 받아안게 될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넘원까지 합쳐 인민이 몸무고 희생하면 모든것을 다 풀피워주고 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는 심장혈관외과 의료일군들에게 배가의 책임감을 지니고 더 높이 비약할 힘과 열정을 주었다. 옥류아동병원에 옮겨온 당시 경험있는 의사들은 과의 절반력량도 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소아심장외과를 개척하던 그 정신, 그 투지를 안고 새 세대 의사들을 이끌어 또다시 출발선에 나섰다.

심장수술은 한두명의 재능있는 의사들만으로는 결코 할수 없다. 수술, 체외순환, 마취, 집중치료가 하나의 치차처럼 맞물려 한손, 한마음으로 새 심장을 탄생시켜야 하는 심장수술은 그중 어느 한 룡정만 약화되여도 성공할수 없는 집단주의의 결정체이다.

마취과장 권영진동무와 의사 정경진동무가 새 세대 마취의사와 체외순환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피발선 눈으로 기대앞에서 새날을 맞이할 때 의사 리철현, 김진명동무들은 하루에도 2~3건의 수술을 도맡아 집도하며 보람의 수술칼을 버리여나갔다. 그곁에는 항상 1조수가 되여 지혜와 용기를 더해준 조인수동무가 서있었다. 새 세대 의사들을 위한 강의실이 되고 첨단돌파의 전투장이 된 수술장과 집중치료실은 그대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이 나래치던 천리마시대의 뜰끓는 전투장을 방불케 하였다.

하여 한해 최고 150건정도였던 종래의 기록을 돌파하고 한해에 300건이상의 복잡한 심장혈관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와 경애하는 원수님께 여러차례 기쁨을 드리였으며 그 나날에 그들은 어떤 어려운 수술도 마음먹은대로 능히 해낼수 있는 환목있는 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이 집단의 성과를 두고 말할 때 우리는 심장혈관외과 간호원들의 수고를 말하지 않을수 없다. 단순히 주사나 놓고 체온이나 재는 일이 아니라 100여가지 약물을 손금보듯 파악하고 현대적인 의료기구와 설비들을 다루며 방직공이 순희길을 달리듯 늘 땀에 젖어 사는 집중치료실 간호원들은 대부분 꽃나이처녀들이다. 집중치료실 환자들의 간호관리사업을 책임진 김광옥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작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우리 책임감은 때로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간호원이기 전에 어머니, 보육원, 교양원구실을 먼저 해야 합니다.》

명이 지도록 손등을 꼬집어뜯으면서 환자의 박동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초병의 눈으로 한밤을 지새는 리성심동무와 같은 간호원들을 대할 때마다 누가 진짜엄마냐 하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는것은 비단 몇몇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70일전후, 200일전후의 나날에 심장혈관외과집단은 세계적으로도 몇개 나라에서만 진행하는 첨단수술을 여러건이나 진행하였으며 원장, 과장, 부과장모두가 론문지도교원이 되여 새 세대 의사들의 석사학위론문완성에 이바지하였다. 올해 1월 의사 리충성동무와 함께 론문을 발표한 의사선영찬동무는 높은 실력과 무한한 헌신으로 새 세대 의사들에 대한 론문지도를 도맡아 하다싶이 하는 김철진동무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깊이 말하였다.

《제가 입곱번째로 론문을 다시 완성하던 그날 지와 함께 밤을 밝히며 부과장선생이 하던 말을 잊을수 없습니다. 〈입곱번이 아니라 열번을 다시 써서라도 다음세대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우리 대에 깨끗이 해명해야 하오. 내가 오늘 기른것은 한건의 석사론문을 완성했기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참된 실력과 량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지켜갈 새 세대 의학자의 정신을 보았기때문이요.〉》

박사의 학위도 받을수 있는 자기의 론문종자를 새 세대 의사들에게 아낌없이, 사심없이 넘겨주며 그는 늘 이렇게 당부한다.

《이것은 나 하나의 지식이 아니요. 10여년전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모두의 지식으로 첫걸음을 뗐소. 동무들도 그렇게 살기 바라오.》

심장혈관외과 의료일군들이 받는 무수한 감사편지들속에는 이제 겨우 제 이름 석자를 배운 어린것들이 자기 손으로 써보낸 새해축하장들도 많다. 인민은 의학론문으로써 보건일군들을 알지 않는다. 보건일군들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값높은 평가는 그 어떤 명예나 학위학직이 아니라 인민의 진심으로 되는 인정이며 그들이 터치는 고마움의 인사이다.

심장혈관외과에는 소아심장외과가 개척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근 20년의 력사를 담은 15권의 수술기록대장이 정히 보관되여있다. 10년, 20년세월이 흐른 뒤에 그 수술기록대장에 기록되였던 환자들은 이렇게 불어본다고 한다.

선생님, 군대에 나가도 일없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일없습니까?

한건한건 피타게 한 수술이여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병명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는 심장혈관외과 의료일군들은 자기들의 수표와 옥류아동병원의 공인으로 그들의 장래를 책임적으로, 량심적으로 담보한다. 생명의 핵인 심장에 대하여 인민앞에 마음놓고 당당한 담보를 줄수 있는 이런 보건일군들은 얼마나 떳떳하고 행복하며 긍지높을것인가.

병원 초급당위원장인 남현숙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역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생각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에 언제나 그늘없이 밝게 피여오를 웃음의 뿌리로 살고싶은것이 우리 옥류아동병원 의사들의 지향이고 소원입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친히 이름지어주신 옥류아동병원!

옥류라는 그 이름처럼 구슬같은 우리 아이들의 심장의 박동소리와 랑랑한 노래소리에 어울리는 부름이 또 어디에 있으랴. 그래서 옥류아동병원에서 울려나오는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가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그처럼 뜨겁고 류달리도 눈물겹게 메아리쳐 울리는것이다.

* *

근 20년간 3,000여명의 아이들에게 새 심장, 새 생명을!

수천명의 아이들을 선군시대 기둥감들로 다시 태여나게 하여준 참된 의료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이 나라 부모들은 영웅메달을 달아주고싶어한다. 인민의 이 절절한 목소리들, 사회주의보건의 또 하나의 새로운 첨단분야를 정복하기 위하여 완강하고 줄기차게 달려온 실력가집단의 애국적위훈은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앞에 떳떳이 대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보건일군들의 발걸음을 더욱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조 향 선
사진 본사기자 함 평 명

흑백을 전도하는 《북도발위협》설의 모략적진상을 평함

백두산대국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조치들이 련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취해져 세계를 진감시키고 있다.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북극성-2》형 탄도탄이 눈부신 섬광을 힘차게 내뿜으며 만리대공을 꿰지르고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로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들이 일제히 치솟아 멸적의 비행운을 아로새기였다.

엄마전에는 세계가 알지 못하는 우리 식의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의 완전성공이 룬 도래할 폐지를 앞당겨 예고해 주었다.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사변들에 온 진보적 인류가 찬탄을 보내고있을 때 유독 미국과 남조선괴뢰들만이 더무니없는 《북도발위협》설을 내돌리며 비렬한 음모와 모략날조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이 《북의 도발과 위협이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다.》, 《추가적인 중요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악의적인 나발을 불어댈 때 남조선괴뢰들은 《북의 도발과 위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있다.》, 《북의 도발의지를 억제해야 한다.》는 어지러운 비린청으로 맞장단을 쳐대고있다.

지짓과 허구로 일관된 이따위 종상모략이 비단 오늘에 와서 처음 있은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을 불의침공하기 위한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후안무치하게도 《북도발위협》설과 같은 모략날조설을 내돌리며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 흉악한 모략적진상을 다시금 까밝힌다.

《북도발위협》설은 파렴치한 날강도적궤변

우리는 이미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거론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파악하라고 충고를 준바 있다.

다시 상기시키건대 도발과 위협이라는것은 남을 고의적으로 걸고들고 협박하여 해치려는 흉심을 가지고 지지르는 불순한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이것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인 혁보와 군력강화조치들과 아무러한 인연도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를 위한 자위적조치를 《도발》로 헐뜯고 제땅에서 진행하는 정상적인 군사훈련도 《위협》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인 평화적위성발사를 위한 사전준비까지도 《유엔결의위반》이라고 걸고들고있다.

군대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국가방위를 책임진 무장집단이며 군력강화를 자기의 본도로 간주하고있다.

그 어느 나라 군대도 유엔의 승인을 받거나 국제협약의 조항들을 따져보고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다.

문건대 지금껏 미국은 언제 한번 유엔의 승인이나 비준을 받고 군사연습을 벌렸는가.

그러한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주제넘는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진짜도발에 대해 말한다면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인것자체가 위협천만한 도발이며 현실적인 위협을 말한다면 《북지도부제기》와 《족집게식타격》, 《정양전격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무모하게 벌려놓은 전쟁연습이 용납할수 없는 위협이다.

그리고 괴뢰군합정들이 우리측 수역에 대한 해상침범을 더욱 로골화하는것으로 최대열점수역의 군사적긴장을 폭발에로 몰아가는 행위가 수수방관할수 없는 군사적 도발로 된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들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거꿈을 물고 강변해대고있다.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키고 끊임없는 핵위협과 도발로 우리를 핵억제력보유에로 떠민 미국이 《북핵문제》를 거론하는것자체가 흑백전도의 날강도적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더우기 세계에서 최음으로 원자탄을 사용한 핵전범국이고 무려 1 000여회가 넘는 핵시험과 근 1만개의 핵무기를 휘두르며 세계를 제패해보려고 발광하고있는 미국이 우리가 그 위협에 맞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갖춘 핵억제력에 대해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걸고들고있으니 이런 해괴한 정치만화가 어디 또 있겠는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그토록 악을 써대며 걸고드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도 그러하다.

우주개발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우리가 우주개발에 필요한 실제적인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취하는 미국이나 괴뢰들따위가 주제넘게 상관할바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껏 미국을 비롯한 기성의 위성발사국들이 형형색색의 위성들을 좌올리고있어도 그것을 도발과 위협으로 규정짓고 비난한적이 없다.

그런데 미국은 제가 발사한것은 위성이고 남이 발사한것은 장거리미싸일이라고 헐뜯어대면서 우리가 평화적우주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사사건건 걸고들며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얼마전에 우리가 진행한 새형의 대출력 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 대하여 아무재기를 쳐대고있는것도 그러하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그와 동일한 시기에 정찰위성을 발사한데 대해서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묵묵부답하고있는것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처사이다.

저들에게 추종하는 나라나 주구들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불망종짓을 저질러도 눈감아주고 자주적인 나라들이 자기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리는 자위권행사에 대하여서는 무턱대고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하며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날강도가 바로 미국이다.

무작정 우겨대거나 더무니없이 걸고든다고 하여 불의가 정의로 전도되고 허위가 진리로 둔갑되는것이 아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흑백을 전도하는 《북도발위협》설의 미몽에서 깨여나야 한다.

그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 《북도발》과 《위협》을 떠들어댈것이 아니라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이 끝난 후부터 세기를 이어오며 현재까지 무려 1만 8 000여회나 벌려놓고있는 북침전쟁연습부터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지상과 공중, 바다에서 감행되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된 남조선강점 및 해외의 미제침략군병력, 남조선괴뢰군, 여러 추종국가무력을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력,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과 《플림 부스》호핵동력잠수함, 《B-1B》, 《B-2A》핵전략폭격기, 이지스구축함 등 미국의 방대한 전략자산들, 미제침략군 각 군종의 악명높은 《특수작전》무력들을 당장 걷어내가야 한다.

도발의 주범이고 위협의 장본인인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떠드는 《북도발위협》타령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며 흑백을 전도하는 날강도적궤변이다.

모략과 날조는 침략자들의 상투적수법

침략과 전쟁에 앞서 상대측의 《도발》과 《위협》을 날조해내는것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이 행성에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이 생겨난 때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과정은 모략과 날조로 얽혀진 도발의 련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내돌리는 모략적인 《도발위협》설은 곧 타민족과 타국가에 대한 침략전쟁의 위험한 전주곡으로 되였다.

월남전쟁의 발단으로 된 바크보만사건과 유고슬라비아전쟁발발의 통기로 된 꼬쏘보사태, 이라크전쟁의 개시에 앞서 조작류로 시킨 《생화학무기개발》 및 《테로지원》설 등은 미제가 해외침략과 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날조해낸 모략이였다.

미국의 이러한 수법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도 례외가 아니였다.

《루에블로》호사건, 《경호함-56》호사건, 《판문점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등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몰아간 중대한 군사적도발사건들이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루에블로》호가 우리 령해를 침범하지 않고 미국의 앞바다를 항행하였다면 우리에게 나포될리 만무하였고 《EC-121》대형간첩비행기도 우리 령공이 아닌 미국의 령공을 날고있었다면 우리의 영용한 비행대에 의해 수중고혼의 불운을 당하지 않았을것이다.

령 민 굴간안에 핵무기제조공장이 있다며 《금창리사건》을 들고나왔다가 그 모략적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 개코망신한 것도 영원히 만회할수 없는 미국의 수치이다.

진실이 어떠하든 남을 무작정 걸고들면서 침략과 전쟁의 구실을 만들어내는데 버릇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그때마다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켜 제2의 6.25를 도발해보려고 분별없이 발광하였다.

만약 우리의 주먹이 약했더라면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은 열백번도 더 터지고도 남았을것이다.

지금도 미제는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유엔거수기들을 발동하여 《대량살상무기보유국》, 《테로지원국》과 같은 법의법 감투를 다 씌워놓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도발자로 몰아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침략과 전쟁소동을 합리화하고있다.

우리에 대한 모략과 날조의 대명사인 《북도발위협》설은 그 악랄성과 비렬성, 황포성과 파렴치성으로 하여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상전의 조종밑에 괴뢰들은 《천안》호침몰사건을 《북소행》으로 단정하고 그 무슨 《대응》을 떠들면서 《5.24조치》를 강행하여 북남관계를 완전히 접탄벗으며 지어 우리에 대한 선불질로 하여 발생한 연평도포격전도 《북도발》때문이라고 꿰쳐댔다.

《GPS전파교란사건》, 《농협금융콤퓨터망마비사건》, 《3.20해킹공격사건》, 《무인기사건》, 《지뢰폭발사건》 등 제 소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우리와 강짜로 련관시키며 대결광기를 부려댄 사실들은 부지기수이다.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상대측에 《도발》감투를 씌우기 위한 비렬한 모략극을 날조해내는것으로 출로를 찾아보려는 미국과 괴뢰들의 흉악한 본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미국대통령이였던 오바마가 직접 《쏘니 픽처스》사건의 《북해킹설》을 꾸며내고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찬 힐튼어데면적인 《북붕괴》실행을 위한 국가정치테로행위를 정당화해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다가 그 진상이 밝혀져 재해 망신당한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금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비약상은 미국주도의 불순적대세력들을 극도로 전률시키고있다.

강권과 전횡, 지배와 패권으로 이 행성에서 독판쳐온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우주강국으로 위용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을 질식시켜보려고 별의별짓을 다 벌려놓고있다.

유엔무대에서 연출된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와 같은 《제재결의》들과 여기에 꼬리를 문 《단독제재》, 《다국적제재》, 《추가제재》, 《초강도제재》 등은 그 어느것이나 다 《북도발》과 《위협》을 구실로 감행되고있다.

그러나 실지리유는 우리가 불의에 머리숙이지 않고 저들의 강권에 맹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북도발위협》설은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도발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보유를 문제시하고 반공화국침략전쟁소동과 동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꾸며낸 유치한 날조품이다.

《북도발위협》설은 파멸에 직면한자들의 비명소리

케케묵은 《북도발》과 낡아빠진 《위협》설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반민족적인 동족대결정책의 총파산에 직면한 패배자들의 가련한 비명소리이다.

며칠전 미국 새 행정부의 국무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지난 20년간 《북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모든 정책들이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개탄하였다.

전 미국가정보국 장관도 미합중국이 그토록 열중한 대조선제재는 이미 바닥이 드러났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북핵로기》는 실현불가능한 현실이라는것이 확증되고있다고 실토하였다.

오바마의 집권기간 최대의 미국으로 락인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이미 폐기곬으로, 만사람의 조소거리로 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천명한자라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에 집념하다가 력사의 락역이 된 선임자의 쓰디쓴 교훈에서 제갈길을 모색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병적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감에 사로잡혀있는 미국은 저들을 파멸의 나락에 밀어넣고있는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어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다.

세계를 대상으로 마구 휘두르던 미국의 핵몽둥이가 우리의 핵철회에 얻어맞아 동강나고 그 어떤 제재압박도 천연절벽에 부딪친 물거품마냥 되어버린 악몽같은 현실 앞에서 리성을 잃은 음모군, 모략카들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선제타격안과 다방면적인 군사외교적압박, 야만적인 고강도제재와 《제도전복》, 남조선에 대한 전술핵무기재배치와 같은 새로운 대조선방안들을 검토한다고 고아대고있다.

미국의 정책카, 음모카들이 적대시로 탈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사고를 한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지속으로 하여 앞으로 초래될 후과가 어떤것이겠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지금 미국은 우리가 곧 새로운 핵시험을 단행할것이며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발사하는것으로 미국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비명을 질러대고있다.

불순한짓을 저질러 뒤가 켕기는자에게는 모든것이 흉기나 력해로 보인다고 하였다.

미국이 우리 인민의 천년숙적으로, 불구대천의 원쑤로 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이 무서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게 되였을지도 모른다.

단언하건대 미국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자!》는 구호가 전체 조선인민의 증오와 보복의지의 분출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날강도 미국은 정의를 불의로 짓누르고 명분도 근거도 타당성도 전혀 없는 이 불법비법의 극악무도한 적대시책동이 《북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둔갑되여 여론을 어지럽히고있다.

시대는 크게 달라졌고 세계는 계속 전진하고있다.

그러나 모략과 날조로 연명해가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상투적인 생존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로씨야 및 독립국가협동체나라 정당련합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7일 로씨야 및 독립국가협동체나라 정당련합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나라의 무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로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주체105(2016)년도 농업생산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다음의 단위들에 공동순회우승기와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 봉수남새전문농장,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락랑구역 정백남새전문협동농장, 강남군 장교협동농장, 영진협동농장, 대성구역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 성천군 장림협동농장, 삼덕축산전문협동농장, 순천시 동암남새전문협동농장, 순천목장,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 토성협동농장, 신의주닭공장, 송한과수농장, 신의주고치생산사업소,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동신협동농장, 곽산군 로하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정북 태지공장, 염주군 내중협동농장, 남암협동농장, 강계돼지공장, 홍주닭공장, 강계오리공장, 위원군 고보협동농장, 시중군 홍판협동농장, 초산군 구룡협동농장,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 토성협동농장, 송상협동농장, 자성군 은봉협동농장, 화평군 리평협동농장, 중강군 읍협동농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력성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연안군 읍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 서흥군 카창협동농장, 연탄군 읍협동농장, 수봉협동농장,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 원산시 천동남새전문협동농장, 룡천협동농장,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함흥시 함흥남새전문농장, 사포남새농장, 동흥산구역 구흥협동농장, 류정협동농장, 회상구역 하덕협동농장, 정평군 신상협동농장, 룡성협동농장, 광포오리공장, 영광군 홍봉협동농장, 금야군 구룡협동농장, 신흥군 읍남새전문협동농장, 경흥협동농장, 창서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력성군 수서협동농장, 직동협동농장, 력성사과농장, 북청군 지만과수농장, 라하과수농장, 청해농장, 동도농장, 력음농장, 보천과수농장, 예승농장, 룡전과수농장, 청진시 송평구역 근동협동농장, 길주군 봉암협동농장,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천리마구역 고창협동농장, 대보협동농장, 강선협동농장, 룡강군 옥도목화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124개의 협동농장(농목장).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공동순회우승기 수여

삼지연군꾸리기 마감건재전시회 개막

삼지연군꾸리기 마감건재전시회가 개막되였다.

부력기관, 위원회, 성, 중앙기관,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 216사단,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수백개 단위들이 참가한 전시회에는 부사와 나무, 수지를 비롯한 지방건재를 리용하여 만든 120여종에 630여점의 국산화된 마감건재품들이 출품되였다.

개막식이 27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리총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판게부문, 출품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3대혁명소조원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최룡해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11월 눈내리는 북방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삼지연군꾸리기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이번 전시회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향군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꾸리기에서 지방건재를 많이 리용하여 백두밀림의 자연풍치에 어울리면서도 산간도시의 특성이 잘 살아나게 하며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와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전시회가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특색하게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둘러보았다.

전시회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모잠비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김창렵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2일 빨리페 자씬뚜 뉴씨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빨리페 자씬뚜 뉴씨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사가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모잠비끄와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것이다.

조선정부와 인민이 모잠비끄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언제나 지지하고 물심량면의 지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 류경안과종합병원 참관

작끌린 리디아 미쫄로 보건 및 인구상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이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어머니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병원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의료봉사기지로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외래병동, 안정상점 등을 돌아보았다.

단장은 감상록에 류경안과종합병원에 대한 참관은 훌륭한 계기였다고 하면서 병원에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지고 의사들의 수준이 매우 높은데 대하여 감명을 받았으며 두 나라사이의 보건분야협조를 통하여 이곳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적극 교환되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이밖에 대표단은 정양제약공장, 고려의학연구원, 중앙동물원, 문수기능회복원 등을 참관하고 정양료예극장에서 국립교예단 종합료예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세계일류급의 대중체육관팡기지인 마식령스키장을 찾아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였다.

방글라데슈독립 46돐에 즈음한 기념강연회 진행

방글라데슈독립 46돐에 즈음한 기념강연회가 27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강연회장에는 우리 나라와 방글라데슈키발이 드리워져있었으며 《방글라데슈독립 46돐을 맞는 방글라데슈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인민과 방글라데슈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조선방글라데슈친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친선협회성원들과 시내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친선협회위원장은 기념강연에서 방글라데슈정부와 인민이 독립후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념강연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학생소년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다.

전국농업근로자 배구경기 진행

전국농업근로자들의 배구경기가 22일부터 27일까지 정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정양시와 각 도에서 선발된 23개 단체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는 조별련맹전과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함에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선수들은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나날에 련마한 기술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전례없는 알곡생산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긍지드높이 선수들은 경기들마다에서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였다. 전문선수들 못지 않은 체넬키와 강한 타격, 제치있는 막기를 비롯한 훌륭한 경기장면들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이번 경기에서는 높은 체육기술과 집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함경남도남자팀과 황해남도녀자팀이 각각 1위를 쟁취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우승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우승컵, 메달이 수여되였다.

로씨야 및 독립국가협동체나라 정당련합대표단 도착

로씨야 국가회의 로조친선의원단 단장인 까즈베크 따이싸예브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및 독립국가협동체나라 정당련합대표단이 27일 정양에 도착하였다.

정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범죄적인 아시아판나토조작책동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이 본격적인 가동단계에 들어섰다.

얼마전 미제침략군과 일본《자위대》, 남조선괴뢰군은 우리를 겨냥한 미싸일요격훈련을 대대적으로 강행하였다. 거기에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를 탐지, 추적, 요격하기 위해 3자협동능력을 높인다는 광고판을 내걸었다. 그에 앞서 조선반도주변해역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된 미핵항공모함 《칼빈손》호타격단과 《자위대》함선들이 공동훈련을 벌려놓고 지역정세의 긴장격화에 키질을 하였다.

미국은 이번 3자사이의 미싸일요격훈련과 일본과의 해상공동훈련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별개의것이라고 떠들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이 궤긴자의 유치한 변명에 불과하다.

3자사이의 미싸일요격훈련은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주요단계로 선정된 《4D작전》, 《싸드》배비를 가상한 훈련과 직접 련결되어있다.

《4D작전》의 첫단계 항목은 상대측의 미싸일발사동향을 탐지한 후 요격미싸일로 요격한다는것이다. 여기에서 주력을 이루는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지역미싸일방위체계이다. 미국미싸일방위체계는 지상배비형과 해상배비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싸드》는 지상에서의 고고도요격기능을 맡고있고 미일남조선의 이지스함선들은 해상에서의 요격임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벌어진 미일남조선3자미싸일요격훈련은 바로 이 해상요격연습이다. 지상에서는 《싸드》배비를 가상한 요격훈련이 벌어졌다.

이렇게 3자미싸일요격훈련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서 기본을 이루는 《4D작전》, 《싸드》배비를 가상한 훈련과 쥐덫굼처럼 얽혀돌아간다.

미핵항공모함타격단과 일본《자위대》함선들이 벌린 훈련도 마찬가지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목적으로 조선반도로 향한 《칼빈손》호타격단이 전쟁연습이 한창 벌어지는 속에서 일본과의 공동훈련을 벌렸다. 이렇게 비행갑판을 달군 《칼빈손》호타격단이 그대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되여 괴뢰군과 어울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턱밑에서 《자위대》함선들과 보란듯이 공동훈련을 벌린 미항공모함타격단의 이와 같은 군사적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인것이라고 평하고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붕》을 비롯한 일본언론들은 그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자는데 있다고 로골적으로 떠들고있다.

실태는 이렇다. 지금까지 내외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참관의 명목밑에 도적고양이처럼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훔쳐보기만 하던 군국주의일본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감행되는 핵전쟁연습소동에 주역으로서의 몰골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미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일본이 공개적으로 참가할수 있는 길을 터놓은 다음 그것을 3자합동군사연습으로 만들어놓고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의 실전가동을 꾀하고있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이 락조가 비낀 아메리카제국의 운명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에 걸고있다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자주의 성새, 무진막강한 핵강국으로 승승장구하는 백두산대국이 아시아대륙의 관문을 억척같이 지켜서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저들의 전략적리익이 미국의 패권야욕의 희생물로 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지역대국들도 있다. 침략적인 지배야망실현을 위해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지역의 잠재적적수들을 절대적인 군사적우세로 억제하고 무력화시키려 하고있다. 하지만 쇠진한 미국의 혼자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로부터 집단적인 군사적우위로 지역적수들을 제압하기 위한 나토형의 군사블럭조작을 필수적으로 갈망하고있다. 그 전략적지렛점들이 바로 일본과 남조선이다.

미국은 일본, 남조선과의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려고 음으로양으로 획책하여왔다. 그런데 과거사문제, 독도령유권문제 등으로 티각태각하는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갈등이 장애물로 되여왔다.

현재 미국은 이 기본난점이 해결되였다고 보고있다. 일본, 남조선과의 군사협조와 동맹관계강화의 당위성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주구들을 압박하여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라는데 맞도장을 누르게 하였다. 그것을 기화로 지난해 11월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혼란된 남조선정국을 리용하여 일본과 괴뢰들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번개불에 콩닦아먹듯 체결해치우도록 막후조종하였다.

이로써 일본과 괴뢰들사이의 군사협력관계의 허점을 메우고 3각군사동맹조작의 법적발판을 닦았다.

또한 일본이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하도록 사촉하여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코에 걸고 활동범위를 세계에로 확대할수 있는 법률적토대를 닦도록 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묵인, 비호밑에 일제패망으로 박탈당한 교전권과 참전권을 체계적으로 부활시키면서 해외침략의 합법화를 위한 마지막공정인 헌법개악책동에 피눈이 되여있다. 입만 터지면 적기지공격능력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제창하고있다.

미일남조선3자의 침략무력은 유사시 원활한 호환성을 보장할수 있게 미국식으로 보다 일체화되여가고있다. 특히 지역적수들을 겨냥한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 완성단계에 있다. 지상배비형과 해상배비형이 기본적으로 구축되고 부단히 갱신되고있다.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의 종막으로 되는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비가 급속도로 추진되고있으며 일본도 그에 뒤질세라 《싸드》배비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여들었다.

3각군사동맹의 법률적, 제도적, 물질적준비가 모두 갖추어졌다. 남은것은 본격적인 가동을 통한 실전능력향상뿐이다.

사실 지난해부터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은 이미 가동단계에 들어갔다고 할수 있다. 3자는 지난해 6월 사상 처음으로 하와이주변해역에서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도발적인 미싸일경보훈련을 뻐젓이 벌려놓았다.

당시 미태평양사령관이 미싸일경보훈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연습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미일남조선합동군사연습들을 정례화할 속심을 드러내보였고 미국방장관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기구를 내와야 하며 여기에서 미일남조선3자협력관계가 중요한 요소라고 력설해댔다.

그때로부터 3자사이의 미싸일요격훈련은 아홉달도 안되는 사이에 이번까지 무려 4차에나 벌어졌다. 훈련주기는 거의 3분의 1로 짧아졌다. 다른 점은 전쟁연습장소가 태평양한복판으로부터 조선반도주변으로, 유라시아대륙의 턱밑으로 다가들었고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어울러졌다는것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씌우고 일본까지 가담한 3자합동군사연습으로 확대정례화하려는것이 미국의 진짜 흉심이다.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판나토의 출현은 머는 가설이 아니다.

현실은 미국이 주문처럼 외워대는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3각군사동맹가동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3각군사동맹의 첫째가는 공격목표가 우리 공화국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코앞에서 진행되는 적대세력들의 합동군사연습이 군사블럭의 성격을 띠고 광란적으로 확대되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안정을 위하여 우리는 자위적핵억제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것이다.

리 효 진

북침을 노린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

얼마전 미국군사잡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가 남조선강점 미군에 100여대의 지뢰방호용장갑차를 배치하였다는 자료를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2012년에 이 장갑차들을 남조선에 배치하였다가 지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철수하였었는데 지난해 급작스레 작전에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2월부터 다시 배치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지뢰와 기타 폭발물들에도 견딜수 있다고 하는 이 장갑차들의 배치가 지금 남조선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사상 최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개시직전에 완료되였다는데 있다.

미국군사잡지가 공개한 자료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바는 매우 크다. 그것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방어를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북침을 위한것이며 또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갈수 있다는것이다.

결코 무근거한 주장이 아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한 발언내용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번에 미국이 남조선에 지뢰방호용장갑차들을 긴급히 들이민것은 조선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쓸모있게 쓰기 위해서라는것,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에서 성능이 검증된 이 장갑차들이 유사시 세계최대규모의 지뢰매설지인 군사분계선지역을 돌파하고 북으로 진진하는데서 보다 큰 능력을 발휘할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북침을 시도하고있다는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는것은 미국이 추구하여온 전략적목표이다. 그 실현을 위해 미국은 남조선에 체계적으로 무력을 증강하여왔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수법을 숙달하기 위한 전쟁연습에 광분하여왔다. 그 전과정은 우리의 전략적거점들에 대한 선제정밀타격, 기습작전으로 우리 공화국을 점령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이런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에서 언제나 주도적역할을 하고있는것이 남조선강점 미군이다.

무인정찰기와 다목적항공기, 고속수송선, 최신예땅크, 다련장로케트들을 장비하고 원거리 및 륙지와 해상, 공중전투를 자의대로 할수 있다고 하는 남조선강점 미군은 이번 북침핵전쟁연습에서도 선견대로서 맹활약을 하고있다.

미국은 바로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게 되여있는 남조선강점 미군에 지뢰해제를 기본사명으로 하는 지뢰방호용장갑차를 배치하였다. 이것은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야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더욱 무모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면전에서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다가 기회를 타서 실전으로 이행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모든것이 확연해졌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바라지 않고있으며 오직 우리와의 힘의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있다.

현실은 우리가 있을수 있는 미국의 군사적침략에 대처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밖의 다른 길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남조선강점 미군은 물론 해외와 본토의 미제침략군무력이 총동원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의 전쟁억제력강화조치는 불가피하다. 미국이 우리를 노린 불장난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종식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변적인 조치들을 련속적으로 취해나갈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립장을 똑바로 알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는 무모한 망동을 부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만일 미국이 이것을 외면하고 반공화국압살을 고집하면서 감히 우리를 어째보려고 옴쩍하기만 하면 우리는 단호한 선제공격으로 남조선강점 미군부터 철저히 소멸하고 미국본토를 초토화해버림으로써 침략과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고야말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이 경고를 무심히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리 학 남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경고에 접한 각계의 반향

처참한 죽음을 각오하라

악귀들의 무리가 감히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흉악무도한 원쑤들이 사상 최대규모의 력량과 수단들을 끌어들여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린 《특수작전》놀음을 벌린다는 소식에 우리들의 무쇠주먹이 분노로 떨고있다.

존엄높은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이 있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고 가차없이 징벌하는것이 우리의 무자비한 본때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동족대결정책의 총파산으로 파멸의 위기에 빠진 미제와 괴뢰군부깡패들의 최후발악을 짓뭉개버릴 시각이 왔다.

미제가 다른 곳에서는 《특수작전》의 재미를 보았을지 몰라도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일당백기상이 나래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서는 어림도 없다.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한 대역죄를 저지른 원쑤들은 이제 가장 참혹하고 가장 처절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미제침략군의 악명높은 살인귀무리들이 남조선에 모두 기어들었다니 때마침이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험준한 훈련길에서 땀과 정열을 아낌없이 바친 우리들이다.

미제살인악당들이 설사 둔갑술을 쓴다고 해도 분노로 펄펄이는 우리의 서슬푸른 눈초리앞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

눈먼 놈이 앞장선다고 시라소니같은 상전을 믿고 무모한 도발의 길잡이노릇을 하고있는 괴뢰삽살개들도 씨도 없이 족쳐버려 다시는 민족의 망신을 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원쑤들은 처참한 죽음을 각오하라. 천만가지 악을 내뿜는 네놈들의 소굴은 이미 우리의 발밑에 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농적위군 지휘관 림 금 철

쇠스랑으로 가차없이 찍어버리겠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

침략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리고 천하무도한 《특수작전》놀음을 벌리며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는것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복수심을 천백배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미제와 괴뢰패당의 《특수작전》을 우리 식의 특수작전으로 철저히 짓뭉개버릴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만장약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오판하고 어리석은 야망을 드러내며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부리고있는 내외호전광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불벼락맛이 어떤것인지 톡톡히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수많은 《특수작전》병력과 살인장비들을 투입하여 우리의 최고존엄을 어째보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죽어가는자들의 최후발악으로서 멸망만 재촉할뿐이다. 무모한 도발로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미쳐날뛰는 미친개무리를 절대로 살려둘수 없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격이다.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치는 미친개무리를 쇠스랑으로 모조리 찍어버리려는것이 우리모두의 결심이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가증스러운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는 심정으로 올해농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겠다.

은천군 삼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장 인 섭

하루강아지들의 어리석은 망동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숱한 침략무력과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 《B-1B》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총투입한 상태에서 《명령권자제거》니 뭐니 하고 고아대며 《특수작전》실행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우리 공장 로동계급의 치솟는 적분을 자아내고있다. 이놈들이 감히 어디라고 《특수작전》을 한다 어쩐다 하며 날친단 말인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지난해에도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참수작전》이니 뭐니 하며 특대형도발행위에 광분하였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와는 대비도 할수 없는 방대한 《특수작전》무력을 투입하여 우리의 최고존엄을 어째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이것을 과연 용납할수 있단 말인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억척같은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는 우리들은 천하무도한 특대형도발에 열을 올리는 가증스러운 원쑤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족탕쳐버릴 의지에 넘쳐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미제와 괴뢰역적무리들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린 《특수작전》훈련을 벌리고있는것은 그야말로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의 어리석은 망동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경고를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특수작전》따위를 실현해보려는것이 얼마나 허망한 망상인가 하는것을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은 명백히 알게 될것이다.

우리 로동계급의 마치는 특대형도발에 미쳐날뛰는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로 될것이다.

평양조명기구공장 유리분공장 공장장 조 영 수

보복의지를 천백배로 터뜨려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린 특대형도발에 열을 올리고있다는데 이놈들이 정말 정신이 덜 들었다. 감히 어디다 대고 《특수작전》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며 소란을 피우는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혁명의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고있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망동에 복수의 피가 끓고 주먹이 떨리는것을 정말 참을수가 없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흉기를 들고 《특수작전》을 한다 어쩐다 하며 미친듯이 달려드는 호전광무리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그 무슨 《특수작전》에 대해 뇌까대고있는데 이놈들은 아직 진짜 특수작전이 무엇인지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을것이다.

마침 잘되였다. 제 죽을지 모르고 멋없이 까불어대는 호전광무리를 이번 기회에 우리 식의 특수작전, 우리 식의 선제타격전으로 미친개 때려잡듯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려는것이 우리 청년들의 단호한 보복의지이다.

우리에게 천하무도한 특대형도발을 걸어온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은 그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천백배로 치르게 될것이다.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 성 혁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 외무성 대변인담화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강행하고있는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에 전쟁접경의 심각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가 25일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 A/71/843-S/2017/192호로 배포되였다.

트럼프 미행정부는 대조선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이 22일 《트럼프 미행정부는 대조선정책을 180° 전환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최근 미국무장관 틸러슨이 지난 20년간 《북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모두 실패하고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도 종말을 고했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군사적대응을 운운하며 공화국을 위협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이것은 오바마가 백악관을 떠나기 전까지 실시해온 제재와 압박정책을 그대로 따르겠다는것이나 같다고 담화는 주장하였다.

담화는 결국 트럼프집권시기에도 우리 공화국을 핵억제력강화의 길로 떠미는 결과만 초래될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우리 공화국이 왜 핵무력강화의 길로 줄기차게 나가고있는지 그 근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인민의 참된 삶을 지키는 정의의 보검이고 가장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밝힌것처럼 우리 조국은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에도 기꺼이 대응해줄수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아무리 대조선압박과 제재소동에 광분하여도 우리 공화국은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으로 제국주의의 멸망을 앞당기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고있다.

세계는 이번에 우리 조국이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의의를 가지는가를 예측하고있다.

트럼프는 실패한 력대 대통령들과 다른 180° 전환된 대조선정책을 태하는것이 미국의 운명을 유지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트럼프는 부당한 유엔《결의》같은것을 백번 조작해낸다고 하여 달라질것은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우선 북침핵전쟁연습부터 당장 중지하고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철수시켜 평화회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땅에서 걷어가야 하며 공화국을 위협하는 군사행동들을 모두 종결하여야 한다.

트럼프정부는 허황한 망상하에 막대한 군사비지출로 돈과 시간을 랑비하지 말고 형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싸드》배치중단과 평화통일실현을 위한
1 만 명 선 언 운 동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싸드》배치중단과 평화통일실현을 위한 서울시민 1만명선언운동에 돌입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리명박, 박근혜《정부》가 잘못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큰 잘못은 남북사이의 대화를 중지시키고 호상 신뢰를 깨뜨린것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이미 사라졌어야 할 《보안법》이 아직도 남아서 통일운동단체 인사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있다고 하면서 적폐청산의 최우선과제가 다름아닌 《보안법》폐지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국민이 반대하는 미국의 《싸드》배치는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 대화와 협력, 화해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여기서 1만명선언이 매우 중요한 운동인것만큼 열심히 전개하여 적폐가 청산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음달 중순까지 1만명선언운동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갈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가하여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룩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진실로 통일을 바란다면 남북의 접촉을 가로막지 말고 민간교류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싸드》배치 즉시중지,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전면무효, 남북관계회복과 민간교류보장, 평화협정체결, 《보안법》폐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괴뢰당국의 《싸드》배치강행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불의의 군사적침공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수법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미제의 침략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핵전쟁발발의 극단에로 치닫고있다. 어느 시각에 제2의 조선전쟁이 발발하겠는지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긴박한 조선반도정세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제의 무모한 전쟁광증에 기인된다.

미국은 사상 최대규모라고 알려졌던 지난해의 합동군사연습때보다 더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의 남쪽땅에 끌어다놓고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이러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 핵전쟁도발각본을 임의의 시각에 그대로 실천에 옮길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년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하던 외피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저들의 연습목적이 우리에게 핵선제타격을 가하려는데 있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고있다. 외신들은 미국이 실지로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계획을 검토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불의에 군사적타격을 가하여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지난 20세기와 21세기의 전쟁일지들을 살펴보면 제국주의자들은 공격시간을 주로 일요일 그것도 새벽이나 아침으로 정하군 하였다. 1941년 6월 파쑈도이췰란드가 쏘도불가침조약을 배신하고 쏘련을 침공한 날도, 1941년 12월 일제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날도 모두 일요일 새벽이였다.

지난 조선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리승만괴뢰도당을 부추겨 사람들이 단잠에서 깨여나지 않은 일요일의 이른새벽 불의에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침공하였다.

미국은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침략과 전쟁을 도발할 때에도 새벽에 공격을 개시하군 하였다.

그레네이더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공을 놓고보자.

그레네이더에서의 진보적인 정부출현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있던 미제는 이 나라 내부정세가 일시 복잡해진 기회를 리용하여 1983년 10월 25일 새벽 불의에 그레네이더를 침공하였다. 당시 12만명이 되나마나한 인구에 2 000명정도의 병력밖에 없었던 그레네이더를 1만 5 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하여 전격적으로 점령한 제국주의렬강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횡포는 세계전쟁사에 수치스러운 한페지를 남겼다.

미국은 빠나마침공때에도 같은 수법을 썼다.

빠나마운하와 운하지대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노리고있던 미제는 1989년 12월 16일 빠나마방위군사령부청사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 1명의 미군장교가 죽자 미제는 그것을 빠나마침공의 좋은 구실로 삼았다. 당시 빠나마군은 미군이 공격해올것으로 타산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미군의 공격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미군이 기만전술을 썼던것이다. 빠나마군은 점차 해이되게 되였다. 바로 이것을 노렸던 미제침략군은 12월 20일 새벽 빠나마에 대한 불의적인 침공을 단행하여 저들의 침략목적을 달성하고 빠나마지도자를 체포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이처럼 일요일이나 새벽을 무력침공의 시간으로 정하는데는 그럴만 한 까닭이 있다.

일반적으로 새벽이나 일요일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긴장성이 제일 풀리는 때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새벽이나 일요일에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빈틈과 약한 고리를 노리며 시간선택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원래 국제법상의 관례를 따르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일방이 타방에게 그에 대하여 공포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언제나 선전포고도 없이 불의에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켜 최단기간내에 전쟁을 결속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미국의 그 어떤 불의의 군사적침공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침략자 미제와는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말 혁명적의지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군대는 멸적의 총창을 억세게 틀어잡고 한순간의 해이도 없이 원쑤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미제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해이되기를 바라는것은 헛된 망상이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만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함부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의 불집을 터트린다면 우리 혁명무력의 천백배의 보복타격에 부나비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김 수 진

ㄱ-71048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